

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문화의 양기

디자인 세상

파라라 평방

중국의 문화, 중국의 힘



이난경

“ ‘인상 프로젝트’는 대 자연을 공연 무대로 활용한 발상의 전환이 특징이다. 여기에 빛과 소리를 활용해 오감을 자극하고 중국만의 문화적 특색을 담아낸 것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임선택



최근 들어서 마스크에 자주 오르내리는 안과질환이 '황반변성'이다.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게 눈의 '망막'이라는 조직인데 그 중 한가운데 중심부 망막을 '황반'이라고 하며, 이 부분에 손상이 오는 경우를 통틀어서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최근 들어서 마스크에 자주 오르내리는 안과질환이 '황반변성'이다.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게 눈의 '망막'이라는 조직인데 그 중 한가운데 중심부 망막을 '황반'이라고 하며, 이 부분에 손상이 오는 경우를 통틀어서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루센티스(Lucentis)가 뭐길래

드물었으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흡연, 자외선 노출 등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황반변성은 망막 밑에 생기는 신생혈관의 유무에 따라 습성과 건성으로 나뉜다. 습성은 망막 주변에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쌓여 황반부 혈액공급을 방해해 새로운 혈관들이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 원인이다.

펠드라는 미국 안과외과가 습성 황반변성에 사용해보니 가격은 훨씬 싸지만 신생혈관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지는 걸로 판명이 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연장 공원 활성화로 국토 황폐화 막아야

최근 광주에도 자연장이라는 장묘문화가 생겼다. 반가운 일이다. 자연장은 기존 수목장 개념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땅바닥에 가로 30cm, 세로 30cm 가량의 구멍을 뚫어 화장한 유골을 묻고 그 위에 분묘 대신 나무나 꽃, 잔디를 심는 방식이다.

최근 광주에도 자연장이라는 장묘문화가 생겼다. 반가운 일이다. 자연장은 기존 수목장 개념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땅바닥에 가로 30cm, 세로 30cm 가량의 구멍을 뚫어 화장한 유골을 묻고 그 위에 분묘 대신 나무나 꽃, 잔디를 심는 방식이다.

기고

김정인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이 갈수록 기세를 부리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를 넘어 미국 등 국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리적으로 볼 때 북방 4개 섬, 즉 예도로후, 구나시리, 시코단, 하보마이는 러시아 캅차카 반도 보다는 일본 홋카이도에 훨씬 가깝다.

독도를 지키는 길

그런데 독도와 북방 4개 섬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독도는 우산국의 일부로서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신라에 병합되기 훨씬 전인 선사시대부터 줄곧 우리의 생활권이었다.

지키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는 독도를 놓고 출몰 일본에 끌려다니고, 잊을만 하면 뒤늦게 맞는다. 북방 4개 섬을 놓고 러시아는 늘 당당하게 일본에 대처한다.

선거 투표소 설치 장소, 종교시설은 피해야

며칠 전 서울시 교육감 직선 투표가 있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서울시에만 390여 개소나 되는 투표소가 교회에 설치됐다고 한다.

이런 결과 '종교 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특정 종교 시설에 출입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 즉 헌법과 국제 인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시설

광주 학원가 수강료 편법 인상 뿌리 뽑아야

광주시내 학원과 교습소의 불·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 육청은 최근 51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절반에 가까운 25곳을 적발했다.

그렇지 않아도 수강료 인상폭은 가파르다. 통계청이 조사한 7월 소비자물가에서 대학원 수강료는 지난해보다 7.1% 올라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5.9%보다 높았다.

올림픽 개막 한국선수단 선전 기대한다

베이징올림픽이 오늘 개막된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One World, One Dream)'을 기치로 내건 베이징올림픽은 8일 밤 8시(현지시각) 개막식을 갖고 17일간 지구촌 잔치를 벌이게 된다.

역대 올림픽에 14번 참가해 1984년 LA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10위에 오른 이후 5차례나 10위권에 진입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선 4위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했다.

無等鼓

베이징(北京)의 역사는 유구하다. 베이징은 전국시대 연(燕) 나라부터 출발해, 요(遼)·금(金)·원(元)·명(明)·청(淸) 등의 수도를 거쳐 1911년 신해혁명으로 탄생한 중화민국 초기에도 중심 도시로서 800년을 이어왔다.

돈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무거운 빚장이 풀렸다. 이후 베이징은 반세기 뒤 되찾아 세계의 중심으로 변모했다. 1978년 실용주의를 앞세운 덩샤오핑(鄧小平)의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베이징은 30여 년 만에 국제무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베이징



베이징은 '핑퐁 외교'(Ping-pong 外交)로 베일을 벗는다. 지난 1971년 제31회 나고야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미국 선수대표단과 기자들이 베이징, 상하이 등을 순방함으로써 20년 이상 막혔던 서방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됐다.

이제 베이징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외교안보의 주축이 됐다. 또 '세계의 공장'으로 치지되는 중국은 국제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광 光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